전남 지난해 합계출산율 0.97명 '전국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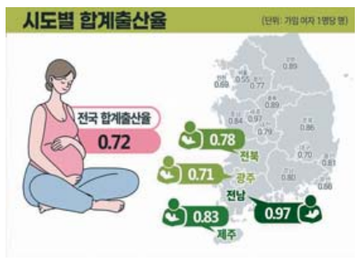
영광 1.65명 도내 1위, 강진 1.47명 2위
광주 0.71명 전국 13위…서구 제일 낮아

지난해 전남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반면 광주는 0.71명으로 전국 평균 0.72명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호남·제주지역 인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세종과 함께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 중 전남도내 합계출산율은 영광군이 1.65명으로 가장 높았고, 강진군 1.47명, 해남군 1.36명, 장흥군 1.26명, 함평군 1.22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합계출산율 평균은 0.72명이지만 광주는 0.71명으로 전국 13위를 기록했으며 2022년 대비 16.4%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구별로 살펴보면 동구 0.78명, 광산구 0.77명, 북구 0.71명, 남구 0.69명, 서구 0.59명 순이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 연령대(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다.

광주·전남지역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 35-39세, 25-29세 순으로 높았다. 평균 출산연령은 광주 33.2세, 전남 32.9세로 나타났다.

출생 성비 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광주 103.7명, 전남은 101.1명으로 두 지역 모두 남자아이가 많이 태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출생아 중 첫째아 비율은 광주 56.8%, 전남 53.6%이었으며 셋째아 이상 비중은 광주 8.5%, 전남 11.5%로 집계됐다.

2022년 대비 광주·전남 모두 첫째아 비중은 증가했으나 둘째아와 셋째아 비중이 감소해 다자녀를 출산하려는 가정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광주 출생아 수는 광산구(1천917명), 북구(1천856명), 서구(1천27명), 남구(831명), 동구(541명) 순으로 많았고 전남은 순천시(1천389), 여수시(1천121명), 광양시(827명), 목포시(815명) 등이었다.

사망자는 전남 1만9786명, 광주 8천866명, 조사망률(인구 1천명당 사망자 수)은 전남 11.0명, 광주 6.2명으로 집계됐다.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는 광주는 늘고 전남은 줄어들었다.

광주는 5천169건, 2천399건으로 2022년 대비 각각 5.4%, 1.7% 증가했으며 전남은 6천157건, 3천517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0.4%, 1.3% 감소했다. /안태호 기자

광주인자위, 산업구조변화 대응능력 제고

특화훈련 성과보고회 개최, 우수기관 사례 등 공유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광주인자위)는 27일 광주 위더스 웨딩홀 4층에서 '2024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지역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이하 산대특) 사업을 운영하는 27개 훈련기관 대표와 담당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광주지역 산대특 사업 현황과 운영 우수기관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현경 광주인자위 수석은 "산대특 사업이 시작된 2022년 이후 3년 연속 '우수'평가를 받았다"고 밝히며 '2024년 광주지역 산대특 사업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2024년 광주지역 육성산업 및 지원산업 직종 선정과 훈련 및 인력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훈련과정 개설 성과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이어서 산대특 운영 우수사례도 발표됐다.

김미희 스마트인재개발원 팀장은'모집부터 취업까지 A to Z'의 주제로 IT 관련 차별화된 교육 운영시스템을 소개했고, 기업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프로젝트 발표와 채용을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박현지 그린컴퓨터아카데미광주학원 부원장은 '산대특 숙성기를 위한 특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2년부터 산대특 활성화를 위해 전문 훈련상담사를 배치하고 효과적인 모집과 홍보방법 및 훈련의 실시율과 수료율을 높이는 노하우를 발표했다.

전성연 모다인패션디자인학원 원장은'옷 만들다 국가대표가 된다고?'라는 제목으로 훈련생 중 파리국제기능올림픽 의상디자인 직종부문 금메달 획득한 강태석 선수의 국가대표가 되는 과정을 발표하며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형 광주인자위 사무처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광주지역의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산업계 필요 인력을 양성하는 산대특 사업의 우수사례가 많이 전파되기를 바란다"며 "광주인자위는 내년에도 산대특 사업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고,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대특 사업은 산업구조변화 등 신산업육성과 고용 위기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되는 분야의 재직자와 구직자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으로 지역별 산업변화에 맞춰 훈련과정의 적시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훈련생에게는 훈련비 전액지원과 과정에 따라 특별훈련수당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임채만 기자

김장김치 나눔의 손길 28일 광주 북구 문흥동 종합자원봉사센터 앞마당에서 '2024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열렸다. 이날 북구 관내 자원봉사자들이 돌봄이웃 1천 세대에 전달할 김치를 버무리고 있다. /김애리 기자

익산국토청 "외국인 근로자 통역사 지원 안전관리 교육 강화"

건설안전협의회 개최…4대 공동과제 평가·내년 계획 논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8일 "전날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서 2024년 하반기 호남권 건설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익산국토관리청, 새만금개발청, 광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남도 등 11개 위원단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 등 8개 자문단 등 총 19개 기관(협회)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계획했던 4대 공동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와 안전협의회 활동을 결산하고 2025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4대 공동 추진과제는 찾아가는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원(92회), 건설현장관리 업무편람 제작·배포(10개 발주기관 배포), 합동 안전문화 및 의식강화 행사(5회), 전남도 통역사 지원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 교육 시행 등이다.

2024년도 건설안전협의회 공동과제 중 만족도가 높았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원 및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 교육은 관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등 효과가 좋아 향후 지속 추진키로 했으며, 2025년 협의회 활동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기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실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경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 안전이 최우선 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고용부 목포지청, 임금체불 청산율 89%

연말 청산 기간 운영 등 현장 집중 지도…"피해 신속 구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건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현장 지도로 피해 구제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28일 "전날 영암군 삼호읍 소재 업무시설 신축공사 건설현장 등 6개소를 방문해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건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을 집중 지도했다"고 밝혔다.

목포지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청산 기간'을 운영해 임금체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전 활동의 연장선으로 지청장이 직접 현장 행보에 나섰다.

목포지청 관내 지역에서는 지난 25일 기준 임금체불액이 231억7천900만원 발생(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나, 임금체불 엄단과 홍보 강화로 이중 206억5천600만원(청산율 89%)의 체불액을 신속히 해결했다.

이재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은 "관내에서는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한 사람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에너지 절약 및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겨울철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하나!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 20℃ 유지하기
둘! 뽁뽁이, 커튼으로 틈새 열 손실 줄이기
셋! 내복, 무릎담요 등 온(溫)맵시 실천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섬진강맑은물이 길러낸 우리 농산물이 가득한 곳

섬진강기차마을전통시장,
옥과시장, 석곡시장

⊙ 장이 서는 날 ⊙

● 섬진강기차마을전통시장 : 매월 3일, 8일로 끝나는 날
● 옥과시장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 석곡시장 : 매월 5일, 10일로 끝나는 날 (31일이 말일인 경우 31일)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TV 후원 : 곡성군 GOKSEONG COUNTY 문의 : 062)650-2099